

# 심의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는 지자체 장소 공모를 통해 5개 지역(부산 다대체육공원, 공주 금성배수장, 함양 상림공원, 화순 동구리공원, 계룡 금암근린공원)을 선정한 후, 5개 지역에서 공공미술 설치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기획자를 지난 10월 20일과 11월 5일의 최종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최종 심의에는 16명(팀)의 기획자가 응모하였고 기획자의 해당 지역에 대한 기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장소별 기획자 1명(팀)을 선정하였다.

기획자 최종 심의는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공공미술의 한계를 벗어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기획의 수월성과 공간과의 조화,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 및 협업 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공공미술 시범사업이므로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 전형에 대한 필요가 기본 전제가 되었으며 기존의 공공미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획을 제시하거나 장소의 해석, 장소와 기획과의 개연성이 부족한 경우는 선정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선정 기획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의 다대체육공원의 기획자로는 와이즈건축(대표 전숙희, 장영철)을 선정하였다. 당선된 기획안은 부지 내에 별도로 조성되는 홍티아트센터를 고려하여 여러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을 컨셉으로 해서 지속성 있는 기획이 가능한 동시에 제안된 작품 자체로도 조형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점, 다대체육공원 주변의 홍티포구 등 지역적 콘텍스트를 연결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충남 공주시의 금성배수장에는 김장언을 기획자로 선정하였다. 당선자가 제시한 기획안은 기획자, 작가, 건축가 조합의 이상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배수장과 제민천의 물의 흐름을 추적하여 재생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경남 함양군의 상림공원의 기획자로는 홍보라를 선정했다. 당선자는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림숲에 소리를 매개로 접근하는 참신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숲이라는 자연적 경험을 예술적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또한 눈에 띄는 기획이었다.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의 개념이 명확하고 유기적인 연계 하에 조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도 돋보였다.

전남 화순군의 동구리호수공원의 기획자는 정소익이 선정되었다. 동구리호수 공원은 자연과 인공 환경의 경계로서 잘 정비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당선된 기획은 이 장소에 자연과 인공이 만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경험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족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창의적인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남 계룡시의 금암근린공원의 기획자로는 조주연을 선정하였다. 도시공원에서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점, 파편화된 현대의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점이 주목되는 기획이었다.

각 기획자가 제시한 기획안은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12월의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 될 예정이다.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및 작품 설치 등 본격적인 사업 실행은 2013년에 이루어진다.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미술의 새로운 전형을 통해 도시공원에 예술적 활기를 불어 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협조와 지역 주민 등 여러 관계자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